

## 慎 武 賊

1914年 12月 14日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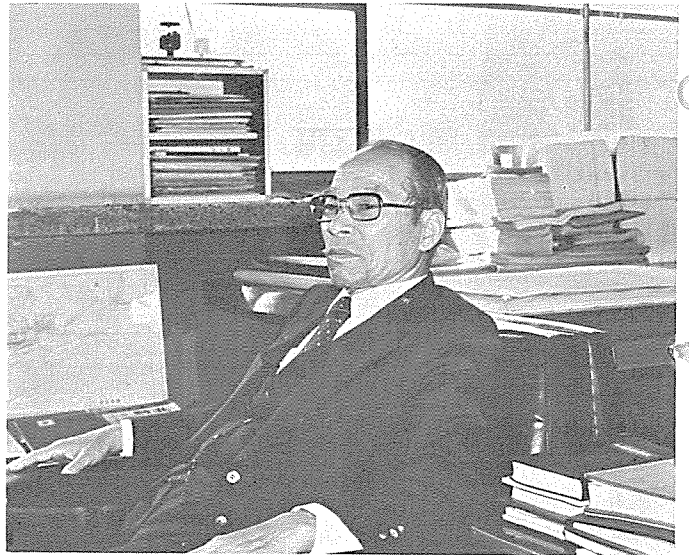
本籍：京畿道 坡州郡 金村邑 金陵里 359

住所：서울特別市 龍山区 二村洞 300-133

(한강맨션 아파트 16-103)

### 學歷 및 經歷

- 京城高等工業學校(現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建築科卒業
- 交通部 施設局 建築課長(技正)
-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建築工學科(建築施工法)講師  
交通高等學校 講師
- 梨花女子大學校 家庭學科(住宅)講師
- 交通部 鐵道建設局長(技監) 三大產業鐵道인 榮岩線, 寧越線 聞慶線, 建設開通 中央庁(現經濟企劃院) 庁舎 新築設計 (韓美合同 檢討)韓國側 代表
- 高等考試委員(建築分野) 建設技術者 審査委員(建築分野)
- 大韓建築學會 副會長 서울市 文化委員 및 서울市 文化賞 審査委員
- 鐵道建設 및 鐵道工場 施設研究次 美國에 1年間 出張 歸國途上 歐洲各國(西獨, 英國, 佛國, 이베리, 西瑞)을 約 2個月 視察
- 中央都市 計劃委員會 委員 合同經濟 技術分科 委員, 交通部施設局長(技監)
- 雙龍洋灰工業(株) 常務理事 就任(建設担当)
- 第1次 5個年 計劃事業의 基幹産業인 시멘트部門 雙龍洋灰 寧越工場(年産 40萬屯 規模) 建設
- 第2次 5個年 計劃事業의 基幹産業인 시멘트部門 雙龍洋灰 大單位 東海工場(年産 200萬屯 規模)建設
- 雙龍洋灰(雙龍빌딩) 建設
- 第3次 5個年 計劃事業의 基幹産業인 시멘트部門 雙龍洋灰 增設 第2次 寧越工場 100萬屯 增設 工場建設
- 東海工場 120萬屯 增設工事 建設 竣工
- 建設部 建築士試驗委員(第1回~7回)
- 1級 建築士 免許 받음
- 國會議事堂 懸賞 設計 審査委員 및 建設委員 顧問, 建設協會 技術委員會 委員
- 大韓建築學會 參與
- 中央設計 審査委員會 委員(建設部長官)
- 瑞韓建築技術研究所 開所
- 英國 “에딘바라”에서 開催된 C.I.B 總會에 參席后 約 2個月間 歐羅巴 및 美國 日本 等各國의 建築 및 建設界 視察
- 建設共濟組合 技術顧問
- 第12, 14回 17回 技術士 資格 審査委員, 科學 技術賞 候補者 審査委員
- 社團法人 交友會 理事長
- 株式會社 瑞韓建築技術研究所 代表理事
- 大韓建築學會 會長
- 韓國科學 技術團體 總聯合會 理事 및 科學技術 用語 辭典編纂 委員



- 서울國際사이언스클럽 理事長
- 大韓建設協會 技術審議會 委員
- 韓國科學 技術團體 總聯合會 國民住宅 問題 研究委員會 委員長
- 日本筑波에서 開催된 C.I.B 分科會議 參席 및 美國 H-WAII와 日本 東京都內 特殊 建造物 視察
- 鐵道庁 建築技術 諮問委員
- 日本 東京에서 開催된 U.I.A 第4地域 會議에 參席 및 日本東京 京都地區 特殊建物 視察
- 韓國 國立公園協會理事
- 大韓民國 紅條 勤政勳章(第1707号) 받음.
- 第1回 科學技術賞 建設分野(本賞) 受賞
- 大韓建築學會 技術賞 受賞
- 서울市 文化賞(建設部門) 受賞

### 主要 設計 実績

- 鐵道庁, 交通部, 所管 釜山 鐵道工作廠 貨車工場, 清津, 平壤 元山 鐵道工作廠 機關車工場, 鐵道 甲檢車庫 現場 監理. 6.25 戰禍 鐵道 建築物 復旧
- 金浦 國際空港 庁舎(旧) ● 馬山, 龜尾, 全州 驛舎
- 大田 貨車 修理工場 ● 富谷 鐵道公務員 教育院 全般
- 鐵道 技術 研究所 ● 鐵道 從事員 아파트 永登浦 綜合 庁舎 ● 榮岩線, 聞慶線, 咸白線, 三大建設線의 施工 管理(監督) ● 遞信部 所管 5萬回線 標準 電話局舎 水原, 鎮南, 西大邱 電話局舎
- 雙龍洋灰(株) 所管
- 雙龍洋灰 雙龍工場 大單位 東海工場의 地方 各分工場 2次增設 및 附帶建築 全般 各地方의 Remicon 工場과 陸海 輸送基地의 貯藏施設의 綜合計剛 및 設計 監理
- silo 建設의 Slidding工法의 開發普及
- 雙龍洋灰(株) 社屋 設計監理
- 카본 共和國 綜合 百貨店 및 아파트빌딩 設計
- 三華 製紙 烏山工場 設計 監理
- 高麗火災(株) 大田, 全州支店 設計 監理
- 日刊 内外經濟 코리아 헤럴드 社屋 設計(汝矣島)
- 大林産業(株) 社屋 設計
- 三信合同(株) 安養 縫製工場 設計監理
- 金頭哲氏 住宅 設計 監理 ● 韓國 키스톤 발부(株)工場 設計 監理 ● 韓國纖維 試驗 檢査所 社屋 設計 監理

따뜻한 햇살이 내려 쪼이는 화창한 봄……  
慎武賊 會長任을 訪問코저 市内 亭洞 빌딩501號室門  
을 두드렸다. 10余名의 技士들이 設計에 熱重하고 있  
는 中이라 조심스럽게 用件을 말하고 案内를 받아 會  
長任의 執務室에 들어서게 되었다.

繁華街의 高層建物들 사이로 南山이 바라다 보이는  
六坪 남짓한 아늑한 事務室은 藏書로 가득차 있어 한  
층 무게를 더해주는듯 했다.

複雜한 都心에서도 自然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서 아마도 많은 作品들을 構想하셨으리라. 맺고 끊음  
이 分明하고 不義를 보면 결코 물려서지 않으실 先  
生任, 매사에 徹頭徹尾하신 先生任의 그 高潔한 性  
品은 每事 언제봐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 많은  
年倫을 쌓아오신 先生任의 조용하고 品位있는 말씀속  
에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慎 武 賊 (前大韓建築學會 會長)  
對 談 金 正 澈 (本協會編纂委員長)

金: 先生任 그간 安寧하신지요?

慎: 어서오십시오. 協會業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  
니까?

요즈음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元老 建築家 探訪” 原稿 請託을 받았습니다. 내 自  
身の 心情이야. 아직도 靑春같이 生覺하고 있습니다  
만은 數年前에 하와이를 들렀을때 朴寬斗先生을 만나  
뵈운 일이 있었지요. 80高齡에 아직도 現役에서 일  
하고 계셨고 저보고도 健康이 유지되 는대로 活動하는  
것이지 年壽에는 關係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記憶이 남니다. 何如間 오늘도 現役의 한사람  
으로 내 나름대로 알맞은 活動을 하고 있는中 입니다.

金: 先生任의 近況에 對하여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慎: 77년에는 建築學會 關係로 日本 筑波에서 開催된  
C.I.B 防火關係 研究會議에 參席 했었는데, 10個國에서  
約 150名이 參加 했었고 韓國에서는 나 혼자서 갔었  
지요. 筑波의 學園研究都市와 國立 建設研究所를 見  
學하였는바 世界第一 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참으  
부러웠습니다.

新幹線으로 九州 福岡에 있는 最新式 鐵道工作廠  
을 見學했는데, 世界 最初로의 最大 鐵道基地 였으며  
重量物 二層 工場이였고 公害防止를 爲해서 下水道  
물이 再生 使用 하는데까지의 完璧한 施設을 자랑하  
고 있었습니다.

80년에는 建築家協會 關係로 日本東京에서 開催된  
U.I.A 第4地域會議에 參席하였습니다. 13個國에서,  
350名이 參席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2名이 參加했었  
지요. ”都市와 人間과 環境”이라는 主題였지요. 녹이  
쓰러가는 머리와 마음을 可及的 刷新 해보고저 또 外

國의 建築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等等으로 가끔 外  
國 나들이를 圖謀하고 있습니다.

金: 先生任의 말씀에 새삼느낀바 큼니다.

全建築家가 恒常 新技術을 배울려는 마음의 姿勢  
가 있어야 할텐데요.

慎: 建築家로서도 與件이 許容 하는 대로 15名 程度의  
小數人員과 같이 지내고 있는 實情입니다. 79年, 80年  
에는 不況이어서 苦役같이 느꼈지만 그런대로 넘어가  
고 있습니다.

建築士라는것은 職業이요. 建築家라는 矜持와 社  
會奉仕라는 天職으로 생각하며 늘 배우며 消日 하는  
滋味로 지내고 있으며 서울國際사이언스클럽 KEC 交  
通部 OB모임의 交友會, 國立公園協會等의 모임에 일  
을 도와드리며 또한 鐵道の 建築 建設共濟組合 및 大  
韓建設協會의 技術에 關한 일 等도 間間이 도와드리  
고 있으며, 1976年以後에는 南서울 Rotary 會員으로  
加入해서 奉仕精神을 배우며 實踐하고 아침散策과 골  
프 바둑을 間間이 하면서 健康維持와 趣味生活을 즐  
기며 親友와의 對話等으로 余暇를 보내는 樂天型으  
로 살아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自身の 社會生活의 經歷은 官職에서 25年 公  
職生活을 했고 雙龍洋灰에서 12年間 시멘트工場 建設  
을 担当했고 建築士 開業以後 7年째 접어들고 있  
습니다. 그러나 44年間의 生活이 내가 배운 建築이  
라는 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걸어 가  
고 있는데는 變함이 없을것입니다.

金: 44年 동안 建築界를 지켜오시면서 지켜오신 信條가  
있으시다면?

慎: 變化無雙한 社會속에서 于余曲折도 많았습니다  
만 그간 特別한 信條라고 할만한 것은 없으나 剛直  
한 性格으로 公職生活 25年에 交通部에서 局長職을  
물러나오는데 官舍拂下도 못받았으며 貰房으로 여러  
차례 移舍다니던 記憶은 지금도 腦裡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一生을 통해서 每事에 誠實하고 努  
力하는 精神으로 내나름대로의 責任을 지는마음으로  
努力한것 같으며 이 世上 모든것이 人間을 爲한 利  
用厚生에 그 目的이 있음을 생각하며 格物致知의 格  
言을 믿고 지내고 있습니다.

金: 未來의 바람과 先生任께서 장차 計劃하고 계신 일  
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慎: 未來를 말하기 前에 現實의 不適合 함이 많지 않  
습니까, 建築이란 人間의 보금자리요, 우리生活의 利  
用厚生에 잘 어울리는 것이라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집장사의 집”에 不良住宅이 많으며, 아직도 日本式  
의 不適當한 殘影, 그리고 都市型住宅의 農漁村 移  
植 等等 改善할 것이 많지요. 그리고 1970年代 까지  
만해도 우리 나름대로의 創作보다는 世界潮流의 風浪  
에의 便乘이 많았다고 生覺되기도 합니다. 1980年代

에도 國際的인 建築觀이 混沌狀態에 있다고들하느니 만치 우리 建築家로서는 溫故而知新의 精神으로 創作의 꿈이 活性化되어 歷史的인 建築藝術과 造型의 形態와 規模는 다르다하드라도 같은 水準 또는 더 優秀한 創作品이 出現되고 建築家觀이 뚜렷이 定立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建築家들도 國際的인 分들이 續出되기를 鶴首苦待할 뿐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建築界가 우리文化의 先導的인 役割을 다해서 “建築은 그 時代의 거울” 임을 빛내야할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自身の 計劃이야 뭐있겠습니까만은 謙讓의 美德과 自己의 分數를 지켜나가는 것을 左右銘으로 生覺하며 모든것을 建築界에 奉仕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金: 建築家로는 社會에 어떠한 義務를 가져야 하며 役割은 무엇일까요.

愼: 建築家라는것은 우리나라 같은 實情에서는 참으로 重要한 立場에서 있으며 또 큰 役割을 하는 棟樑이라고 하겠읍니다. 내 自身도 늘 생각해보고 反省해보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建築은 外形으로서는 우리 建築士의 손을 거쳐서 處理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서울市內의 建築은 그래도 우리 韓國內에서의 先導的인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어느 外國人은 南山에서 鳥瞰해보고 서울은 “콩크리트”의 都市라고 評을 하는가하면 우리나라의 어느 女流小說家は, TV出演에서 서울거리의 흥척해 보이는집들이라고 評했고 우리 婦女子들의 입은옷도 좋은 옷이 이러한 都市에서는 안어울린다고 말 하는것을 들었읍니다. 이런것이 主觀的이나, 客觀的이나 하는差는 있지만 어느 意味에서는 同感이 가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現實이 建築家만의 責任은 勿論 안일 것입니다. 富裕層의 어느宅 庭園을 보면 콩크리트로 無味乾燥하게 輔裝을 해버렸고 담장위에는 가시철망으로 二重三重 엮어놓은것이 普通이지요.

農漁村 住宅改良에서도 西歐式지붕에다 原色 칠등의 現況等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代사람들의 現實이라고 하겠읍니다.

金: 그러한 狀況에서 우리 建築家들의 Roll에 처한 의 견을 좀……

愼: 優秀한 建築家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만 그러나 建築物의 量的인 面을 본다면 優秀한 建築家의 作品이란 實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最近에는 建設業을 해서 財政的으로 致富한분들의 一部에서는 建築家의 存在價值조차 認識하지 못하고 建築을 工業化하려 하고있는 느낌을 주니 참 寒心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建築家는 그 누구 한사람이라도 所重치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自覺할때 自己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디고간에 참다운 自己의 責任이 크다는 것을 認識할 수 있을것이며; 建築家는 自己業務를 通해서 意識的이건 아니건간에 이 社會에서 文化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奉仕精神을 發揮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金: 建築業務에서 가장 보람있었다고 生覺하는 일들에 처하여 기억을 더듬어 말씀해 주시지요.

愼: 1963年末의 일입니다. 雙龍洋灰 CO.의 雙龍工場(40萬屯年產) 建設當時 우리나라는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中으로 시멘트 철강等の 工場 建設에 拍車를 加하고 있을時期였지요.

시멘트工場의 建設에서도 시멘트의 原料과 製品의 貯藏silo의 建設이 工期短縮과 關聯이 되었던 時點에 있었읍니다. 이 時期에 解決方法은 Sliding Form의 利用밖에 없었으며 外國에서 導入하려면 많은 經費와 時日이 所要되어 必要는 發明의 어머니 라고, Jacky의 國內製作시키는데, 成功하였던 일입니다.

그해는 어찌나 추운 嚴冬雪寒이었는데 冬期工事까지 強行해서 12月末부터 1月初까지 直徑 15m의 原料사이로 높이 60m 2基와 시멘트사이로 直徑 12m 높이 45m 4基等を 約 20日만에 胴體를 晝夜兼行으로 完工시켰던 일이지요.

이것으로서 1964年 4月 16日에 試業式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工場이 稼動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시멘트輸入國에서 一躍 輸出國으로 轉換되는 moment를 가지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리고 其後부터 現在까지도 시멘트貯藏庫뿐이 아니고 各種 同種建設에 繼續利用되고 있는것입니다.

金先生任의 建築에 이바지하신 공헌과 信念에 처하여 感謝를 드립니다. 建築業務를 보시는 中에 가장 印象 깊었던 이야기 가 있다면……

愼: 여러차례 設計審査에 關與해보았으나 法院廳舍의 懸賞審査에서는 참으로 뜻밖의 일이 버러졌읍니다. 審査委員으로서는 故金允基氏, 李天承氏, 金正秀氏와 愼武賊이었고 法院側에서 1名이 參與했었던 것으로 記憶하고 있습니다.

審査結果를 點數制로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當選作은 最後의 二點을 놓고 投票한 結果는 法院의 主張하던것이 當選作이 되어 모두 疑訝스러웠읍니다. 常識的으로나 建築審査에서 이런일은 처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人 1票로 權利行事 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었지요.

金: 그밖에 다른 일은 없으신지요.

愼: 李博士께서 大統領으로 계신 時節에 國會議事堂의 懸賞設計가 있어 많은 作品이 出品되었읍니다. 審査委員도 建築美術土木一般等多數이었다고 記憶됩니다. 故金允基氏, 李天承氏, 愼武賊 故崔景烈氏 故張

勃氏 嚴弘燮氏等 많은 審査委員이였지요 마지막 5點이 남았을무렵 滿洲國의 지붕形態를 가진 作品이 異彩였고 當選된것은 金壽根,朴春鳴 共同作品인 로톤다형이였으나 最終 審議過程에서 上部의 말씀이 기와지붕형을 選好하셨다고 傳言이 있었으나 大部分의 審査委員은 否定的이였으며, 大統領의 裁可를 받을때 委員長으로계시던 故金允基氏와 李天承氏가 直接 만나 ঝ고 說明해서 納得하시게한 뒷이야기도 있었지요.

汝矣島 새國會議事堂은 三人合作으로 設計가 完了되어 設計의 檢査와 現場 監理에 參與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設計圖面에 委員全員이 sign을 하라고 했는데 四面에 配列되어 있는 24個의 기둥크기를 보니 下部가 6m角으로 記憶합니다만 比例도 안맞고 柱列이 外面을 大部分 가려버리는格이여서 切半程度로 縮少 하도록 勸誘했었지요.

3.5m角으로 했더군요. 또 工事監理途中에서 日本國에서 輸入한 完製品의 鐵骨鎔接이 不良하게 되어 當時의 建築委員長으로 계셨던 故金允基博士께서 修正을 命하는 等의 事例도 있었고 現代建設Co,와 大林産業Co가 實質的인 Joint-venture로 施工했었는데, 政府의 豫算會計法으로는 이것이 不可能해서 每年 單一 施工業으로 交替하는 形式을 取했었던 일들은 便法의 實例라고나 할것입니다.

金: 建築家로서 社會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事項을 말씀하시겠습니까?

慎: 美國워싱턴 D.C의 大法院의 建物前面의 처마를보면 "JUSTICE EQUAL UNDER THE LOW"라는 標語가 붙어 있습니다.

社會의 構成속에서 建築家라는 存在는 참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올바르게 認識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社會고 國家도 必要한 모든 分野가 均衡있게 參與되고 正當性이 通하는 社會가 正當적으로 發展해 나갈것이라고 生覺됩니다. 普遍妥當性이라고나할까요! 그러나 適者生存 이라는 用語대로 建築家라고 特別한 處遇를 바라거나 要求하는 것은 아닙니다. 共存共榮이라는 바탕아래 機會均等의 風土가 要望된다고나 할것입니다.

建築家라는 것은 科學과 技術과 技能을 發揮해서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는 建設工事を 다루는 基本이 됨은 勿論이고 이것을 다루기 爲해서 모든 知慧를 發露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建築家의 一面이며 工學的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더 重要한 것은  $\pm\alpha$ 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藝術的인 見地 美學的인 立場 그리고 空間中에서의 周圍環境과의 調和力 等과 傳統文化의 見地에서 時代의 潮流속에서의 感覺 處理等 말로만은 表現할 수 없는 面이  $\pm\alpha$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土木工學部內에 까지도 公共施設

物로서 오래된 時代的인 作品에서도 흔히 찾아볼수가 있으며 外國에서의 現代造營物에서까지도 찾아 볼수가 있는 것 입니다.

西歐의 橋樑의 美學的인 處理에서 上部뿐이 아니고 下部構造까지도 이것을 說明하고 있지 않습니까?

國家가 正當적으로 速度있고 均衡있는 發展을 가져오게하는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으나 簡單明瞭한것은 自己가 아는 일을 通해서 專間的인 分業으로 公平하게 펼쳐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社會에서의 病弊가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모두 안다, 다 할 수 있다. 다하고 싶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大學教授가 專攻이 없단든지 하는 것은 常識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가하면 政府 組織法이나 社會構造上 土木關係者가 建築을 支配하는 位置에 있을 境遇가 흔히 있지요.

이분들은 自己를 錯覺하고 建築에 對해서 本意 아닌 過程을 저지르고 있을 境遇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精神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金: 企業主의 立場을 例로 보면 建築은 自己가 살고 있는 住宅으로부터 先進各國의 旅行에서 보고 듣고 한 것 만으로 다 안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는분들을 자주 볼수가 있으니까요

慎: 藝術的으로 꼭 다뤄야 할 國家나 民間의 重要 建築物들도 그저 싸게 短時日內에 지으려하는 버릇은 아마도 速히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起工이나 竣工式에 參席해보면 施工者의 待遇가 優先되고 있습니다만, 建築家도 더 높이지는 못해도 같이 待遇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經驗한 어떤 큰 會社도 竣工 때, 아예 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是正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建築家들은 弱한 存在이지요. 經濟力에서 行政 府內의 位値에서나 그러합니다.

國內에서의 建築關係의 建設工事的 수수 總額도 公共部內와 民間部門을 합쳐서 土木分野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에 마땅한 space가 必要하지요. 이러한 均衡 있는 社會가 되기를 바라며 또 努力해서 이루워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學에서의 建築定員이 過多하며 教育內容에서도 工學分野로서의 置重에서 藝術分野라고할까. 美學分野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되며, 모든것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衡平의 原則도 아울러 適用될 것을 바라맞이 않는 바입니다.

金: 社會에서 均衡을 맞추어 주어야 하며 建築家도 最善의 努力을 해야 할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끝으로 協會發展을 爲하여 全般的인 面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慎: 學校教室이 콩나물教室이란 記事를 읽을때나 不

具兒童들의 施設이 微弱하다든지 住宅問題解決이 難題의 하나라든지 物價가 上昇한다든지等等의 報道를 읽고 들을때마다 머릿속을 스치고가는 아픔과 解決이 안되나 하는 마음이 들적이 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福祉社会國家를 이룬 國家들에는 別다른 問題가 없느냐 한번 生覺해 보게됩니다.

英國이나 美國같은 나라에 무슨 不滿이 있을가 또 日本같은 나라는 어떤가 生覺해보게 됩니다. 잘사는 나라는 더 잘살겠다는 慾心이 더해가고 또 國民의 일부는 놀고먹고 살겠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年例의으로 罷業에다 個個人의 懶怠로 말성을 빚고있는 現狀이 오늘의 先進國의 弊端이라 하겠습니까. 世上살아가려면 高臺廣室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좋은 對照가 되겠지요.

우리 建築士協會의 事情도 이러한 國家的인 社會的인 與件下에서 풀려가고있는 수레바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G.N.P로 보아 80年度 基準으로 한다면 5人家族인 경우 年間收入이 約 500萬원 程度입니다. 우리 建築士가 1,600餘名이라고한다면 建築關係의 公共및 民間의 工費가 1兆원 이라고 假定하고 2%의 報酬로 計算한다면 大略 年間業務量은 1人當 1,200萬원이 됩니다. 이 金額은 우리모두가 合心하고 努力한다면 窮地는 免해갈 것이 아닌가하고 善意의 解決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勿論 海外關係의 業務量等을 감안한다면 훨씬 좋은 高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經濟的인 一面입니다만은 倉能突而知禮節이라고 우리 協會員도 人間임으로 衣·食·住의 生活이 先決問題이겠지요. 그러나 몇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會員이 開業時期가 좀 어떨지. 過當競爭이 어떤지 誠實性이 좀 不足하지 않았는지 等等의 우리自體의 反省해볼만한 余地가 없지 않습니다. 反面에 社會的인 行政的인 與件으로도 中央行政機構에 建築局하나없이 專間的인 建築研究所 하나없이 建築

行政은 円滑을 期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는것 같음니다. 또 建築專問職이 必要한 자리에도 補職되는 일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解決할 수도 없고 언제 解決된다고도 알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與件속에서라도 우리가 걸어갈것은 會長을 中心으로 團結하고 總力을 다해서 最善策이 안되면 次善策으로라도 忍耐하는 精神으로 順序를 기다리는 秩序속에서 健全하고 堅實하게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協會內的 그동안의 瀾亂曲折과 建築法의 작은 改正案은 바람직했던일이라고는 할수 없겠지요. 協會는 會員의 協會가 되어가고 있다는 最近의 狀況은 앞으로의 發展을 期待 할수 있는것이라 생각하고 慶賀하는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면 社會的인 與件과 時代的인 潮流속에서도 文化를 創造한다는 自負心을 갖고 格物致知해가며 周圍의 關係되는 분들에게 建築을 啓蒙해 가면서 社會에 奉仕한다는 굳은 信念으로 團結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會長과 任員에게만 責任을 지우지말고 이 任員陣을 相助해 나감이 協會員의 key 라고 하겠습니까.

金: 先生任은 “建築士誌” 內容을 어떤 方向으로 編輯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慎: 요즈음 “建築士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먼저 協會記事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렇게 全國에 記事를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會員의 친목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會員作品란도 종전에는 서울 會員만 기재하였는데 이제 各地方作品이 게재되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免許를 가지고 있는 全國建築士 또한 學生그외 一般人에게도 널리 보급하였으면 합니다.

金: 그렇지 않아도 그 問題를 研究中에 있습니다.

慎: 끝으로 “建築士誌”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事業에 繁榮과 家庭에 幸福이 될것기를 祈願하는바입니다.

金: 長時間동안 좋은말씀 感謝합니다.

慎: 金理事任께서도 協會를 爲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新刊書籍案内

## 「西洋建築史精論」

朴學在著

發行處：漢陽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朴學在教授研究所

定 價：20,000원 (4×6배판 800面)

供給處：서울 江南區 삼성동 159-114

(대륙빌딩201號) TEL·58-4680